



감독님은 행가래... 우리는 V 지난 27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제4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신일고를 3-1로 꺾고 11년만에 정상에 오른 진흥고 선수들이 최재영감독을 행가래지며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중앙일보 제공)

진흥고 11년만에 대통령배 우승

**신일고 3-1로 꺾어... 최우수 선수에 하영민
 최감독 "인천고와 16강전 가장 큰 고비였다"**

"하나가 되어 실력 이상의 결과를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진흥고의 대통령배 우승을 지휘한 최재영 감독이 끈끈한 팀워크로 승리 행진을 펼친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진흥고는 지난 27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제4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신일고를 3-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괴물' 김진우가 버티고 있던 2001년 이후 11년만의 대통령배 우승이다.
 최 감독은 "1년부터 9년까지, 진흥고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모두가 수훈선수였다"며 "전국체전을 대비해 많은 훈련을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훈련을 통해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실력 이상으로 뽐낼 뭉쳐

우승을 이뤄냈다.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4강을 목표로 대통령배에 도전했던 진흥고는 8강과 준결승에서 각각 아탑고와 경기고를 상대로 1점차 진땀 승부를 벌이며 힘들게 결승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우승의 가장 큰 고비는 인천고와의 16강전이었다.
 최 감독은 "인천고와 경기를 할 때 광주에서 오가느라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 0-5로 지던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연장 승부 끝에 8-7로 역전승을 거뒀다. 우승의 가장 큰 고비였고 또 선수들이 큰 자신감을 얻은 경기였다"고 말했다.
 진흥고의 4번타자 윤대영이 청소년대표

로 차출되면서 대회에 나서지 못했지만 하영민과 임양섭 두 2학년 투수가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키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최 감독은 "대영이가 없는 만큼 선수들이 그 몫까지 해내자며 하나로 뭉쳤다. 올 시즌 3학년 투수들이 부상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2학년 투수들이 역할을 잘해 주었다"며 "결승전에서 먼저 2점을 낸 뒤 하영민을 등판시키면서 승리를 예상했다. 임양섭이 앞에서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하영민이 그 뒤에서 잘 막아주었다"고 경기를 평가했다.
 결승전에서 2회 구원 등판해 7과3분의1이닝을 4피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승리 투수가 된 하영민은 이번 대회 5승을 모두 책임지며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몰심양면으로 진흥고의 우승을 조력한 이들도 있었다.
 최 감독은 "2년째 OB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마친 수원구장이 OB구장과 비슷해서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 진흥고 전교생이 찾아 열린 응원을 해줬다. 동문들도 많이 찾아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46회 대통령배 고교야구 수상자

부문	수상자(소속)	기록
최우수선수상	하영민(진흥고)	
우수투수상	하영민(진흥고)	
김투상	이윤환(신일고)	
수훈상	김정운(진흥고)	
미기상	김영환(신일고)	
타격상	박진두(진흥고)	0.556
최다타점상	심우준(경기고)	9타점
최다안타상	황대인(경기고)	9안타
최다출루상	노민성(제주포고)	17개
도투상	김영환(신일고)	8개
감독상	최재영(진흥고)	
지도상	강의원(진흥고 부장)	
공로상	이충효(진흥고 교장)	
모범심판상	박희용(대한양구협회)	

한화 한대화 감독 전격 사임

성적부진 책임... 한용덕 수석코치 감독대행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한대화(52)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결국 시즌 중 물러났다.
 한화 구단은 28일 "한대화 감독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오늘 대전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홈 경기부터 한용덕 수석코치의 감독대행 체제로 올 시즌 잔여 경기를 치른다"고 밝혔다.

구단의 공식 발표는 자진사퇴 형식이지만 한 감독에게 먼저 계약해지를 알리는 등 사실상 경질 쪽에 가깝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감독은 올 시즌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팀 성적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몇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라이온즈 수석코치를 지내던 2009년 9월 한화 사령탑으로 내정된 한 감독은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이다.
 올 시즌 한화는 27일 현재 39승2무6패로 8개 구단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한화는 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첫해인 2010년에는 최하위, 지난해에는 LG 트윈스와 공동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한 감독은 "성적이 좋지 못해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다"면서 "퇴진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시즌 중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올해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복귀한 거포 김태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투수로는 최다승(124승)을 올린 박찬호, 불펜 강화를 위해 LG에서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 송신영 등을 영입하며 재도약을 노렸지만 성적 부진으로 사령탑의 중도 퇴진을 맞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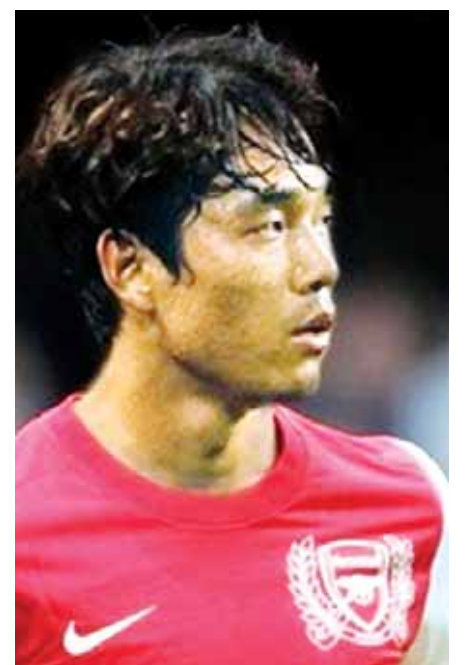
구자철



기성용



이청용



박주영

월드컵 유니폼 누가 입을까

최강희號 오늘 우즈베크전 명단 발표... 올림픽 활약 구자철·기성용 등 합류 할 듯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우즈베크스탄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에 나설 태극전사를 29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새롭게 승선할 주인공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축구대표팀은 내달 11일 우즈베크스탄 타슈켄트의 파르타코르 센트럴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크스탄 대표팀과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최종예선 A조에서 2연승(승점6)을 거둔 한국은 이란(1승1패), 카타르(1승1무1패), 우즈베크스탄(1무1패), 레바논(1무2패)을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3위인 우즈베크스탄과의 역대전적 7승1무1패로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을 뿐 아니라 1994년 10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패한 이후 8경기 연속 무패에 최근 4연승을 거두고 있다.
 최 감독은 이번 우즈베크스탄 원정을 앞두고 그동안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국내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현미경' 관찰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10일 잠비아 평가전에는 해외파를 제외한 국내와 선수만으로 대표팀을 꾸려 우즈베크스탄전에 발탁할 제목들을 평가했다.
 최 감독은 잠비아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와 2012 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첫 동메달을 따낸 올림픽 대표팀 주축 선수들을

아울러 우즈베크스탄전에 나설 태극전사를 선발할 전망이다.
 ▲'홍명보의 아이들' 말마나 뽀핌까 = 올림픽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기성용(스완지시티), 남태희(레리아), 김보경(카디프시티), 김영권(광주 우형대) 등 기존 A대표팀 선수들은 무난히 우즈베크스탄행 비행기에 오를 전망이다.
 이란 가운데 홍명보호의 왼쪽 풀백으로 맹활약한 윤석영(전남)과 오른쪽 풀백 백업 멤버에서 김창수(부산)의 부상으로 주전을 맡은 오재석(강원)은 생애 처음 A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좌우 풀백은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에서 가장 고심하는 포지션인 만큼 윤석영

과 오재석의 대표팀 합류는 팀 전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청용 '맑음' 박주영 '흐림' = 이번 우즈베크스탄 원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이름은 이청용(불만)과 박주영(아스널)이다. 이청용은 지난해 정강이빠가 부러지는 골 절상으로 거의 한 시즌을 통째로 쉬느라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이청용은 이번 시즌 캄페리온스(2부) 정규리그에서 3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며 최상의 몸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표팀에 재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대표팀의 주요특정원인 박주영의 발탁은 장담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차기 사령탑 이정훈·김성근 감독 '급부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한대화(52) 감독이 중도 퇴진함에 따라 다음 지휘봉을 누가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2009년 9월 한대화 감독과 3년 계약한 한화는 계속된 성적 부진에도 계약 마지막 해인 올해 말까지는 임기를 보장할 계획이었다. 한화는 한 감독 부임 첫해인 2010년 최하위를 시작으로 지난해 공동 6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한 감독

의 재계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국 한 감독은 임기도 못 채운 채 시즌 중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
 한화 구단은 일단 한용덕(47) 수석코치의 감독대행 체제로 올 시즌 남은 경기를 치르면서 한 감독의 후임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한화의 차기 사령탑으로 거론되는 지도자는 이정훈(49) 천안북일고 감독, 김성근(70) 고양 원더스 감독 등이다. /연합뉴스

또 만났다 운명의 한일전 U-20 월드컵 30일 8강 격돌

'일본의 안방에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우겠다.'
 2012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 '태극 소녀'들이 속속 일본의 심장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친다.
 정성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0일 오후 7시30분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일본과 8강전을 치른다.
 한국 여자 축구는 2010년 독일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3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린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는 우

승을 달성하고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 성인 여자 월드컵과 올해 런던올림픽 본선에는 출전하지 못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독일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을 물리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고, 런던올림픽에서도 미국에 이어 은메달을 따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했다.
 한국으로서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승부다. 8월 현재 성인 여자 대표팀의 FIFA 랭킹은 일본이 3위, 한국은 15위다.

성인 대표팀 랭킹을 U-20 팀 실력으로 직역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이 분명히 열세다. U-20팀 간의 상대전적에서도 한국이 1무4패로 밀린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도 조별리그에서 2승1무를 달려 A조 1위로 8강에 오르는 등 물 오른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데다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이점도 안고 있다.
 이번 대회 4골 2도움으로 득점 2위를 달리는 다카야 요코(아이낙 고베)와 2골을 터트린 나오토모 히카루(우라와 레드) 등 2010 U-17 월드컵부터 뛰었던 멤버들도 맹활약

중이다.
 한국도 물러설 수는 없다.
 B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여자축구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인 브라질을 2-0으로 완파해 상승세를 과시했다.
 전은하(강원도립대)와 이소담(현대정공) 콤비의 호흡도 무리였었고 첫 경기에서 부상한 '주포' 여민지(울산과학대)의 회복도 순조롭다.
 더구나 이들은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U-17 월드컵 결승에서 일본과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겨 우승컵을 안았던 좋은 기억이 있다.
 정성천 감독은 "흔들 일본이 우리보다 부담이 클 것이다. 지난해 AFC선수권에서 패한 했지만 우리 선수들 기량이 그동안 많이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